

파노라마 서울

정정화는 왜 하나의 이미지에서 복합적 이미지를 보는가? 아니, 그보다 더 맞는 질문은 정정화는 왜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을 믿지 않는가? 일 것이다. 그에 대한 해답은 정정화의 개념놀이를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 그녀는 경험과 연관된 시간성과 공간성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안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조심스럽게 시도해왔다. 그냥 거울인줄 알았더니 양면거울이고 방금 걸어 내려온 계단이 코앞에 똑같은 모습의 사진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당신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당황함을 초래하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개념의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관객의 현재와 바로전 모습을 담은 비디오 모니터를 시간의 전후가 헝클어 놓여진 채로 병렬 설치하기도 했다. 그에게 현재는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시간 지점의 하나일 뿐이며, 여기는 저기나 거기나 혼동 될 수 있는 공간지점의 하나일 뿐이다. 인간의 삶과 경험에 있어 절대조건이라 믿었던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나의 삶은 정정화의 개념적 칼로 해체되고 흔들어진다. 이것은 나에게 해방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그의 철학적 질문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기가 일쑤였다.

「파노라마 서울」은 그의 과거 작품보다는 훨씬 보고 듣는 기쁨이 증가한, 그래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그의 치열한 실험정신을 타협한 채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가 수개월 동안 서울의 대모산 위에 올라가 찍은 수백 개의 비디오 시퀀스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을 이루고 있는 48개 프레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며 나타나고 있다. 계절과 기후의 변화와 서울의 건설열풍 속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건물군의 끊임없는 역동적 발생과 변신 속에서 서울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서울 파노라마」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시도하고 있다. 그곳에는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모자이크 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정정화는 왜 우리에게 서울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잘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울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서울은 실 새없이 지어지고, 해체되고, 변화하는 생물체이다. 그러한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서울을 마주 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서울의 곳곳은 다른 시간적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 어떤 곳은 빠르게, 어떤 곳은 말할 수 없이 느리게, 한 지역은 과거의 모습으로, 다른 지역은 초 미래적인 모습으로, 서울의 이미지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일 수 없고, 복합적인, 그리고 이질적인 이미지의 집합체일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파노라마 서울」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묘미는 산에 오른 사람들이 서울을 내려다보며 하고 있는 각기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서울의 이미지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밖에서 들여다보며 주고받는 이야기 역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의 모습처럼 다양하다. 그들은 보다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바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때로는 신기해하면서, 또 때로는 놀라면서. 대상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

라볼 때의 생경함처럼 서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버티고 서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의 안에서부터 나와 그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서울시민의 반응이기에 더욱 흥미롭다. 자신들의 동네를 찾아보려 하고, 땅값이 많이 오른 다른 동네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계속된다.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들려오는 대화 속에 하나하나 모습을 나타내면 이제 대상화된 풍경으로서의 서울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리로서 다시 구체화된다. 비디오이미지를 통한 변화 속의 역동성, 대화라는 청각적 정보에 의한 구체성 속에 서울의 생명력이 진하게 전해진다. 정정화식 사유의 복잡성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서 정 신/ 문화평론가, 언어철학박사